

사설

대불련 총동문회의 대동결사

대학교 재학 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졸업 이후에도 신행활동과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만든 모임이 대불련 총동문회이다. 이들의 한마음 만들기 전진대회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있었다. 대학생 불교학생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한편 대학생활교육을 시작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불교 흥흥의 새로운 발전을 마련하자는 결의를 다지고자 했던 것이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시간의 길이만큼 10만여명의 동문들이 경향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와 인류의 보편윤리"란 심포지움, 동문과 가

족 그리고 재학생들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산사음악회, 지구별 동문들의 참여화합전진대회, 직능별 동문회 창립 등의 행사를 거행했다. 화합과 발전, 참여와 신행의 일상화가 참석자들의 가슴에 새로운 화두로 각인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밝은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연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해방과 산업사회의 전환과정에서 불교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정교화 사회의 현장을 누비고 있는 회원들의 활동이 확대 내지 건설해집수록 한국불교의 내일이 밝아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비구니 '총본산'에 거는 기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화 활동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생겼다. 서울 강남 수서동에 지어진 전국비구니회관이 19일 정식으로 개관하는 것이 결정적 계기다. 전국비구니회는 세계최초로 지어진 비구니회관이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과 2천여 비구니 사찰의 '총본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여기에는 끊임없는 수행정진의 열의를 진차 시켜 갈 각종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7월 전국 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선 수행특강'을 열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일념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가 기존의 '선문화'를 재정비해 수행가풍을 알차게 가꿔나가기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일궈가는 수행전통과 문

화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비구니회관의 개관과 각종 수행교화 프로그램 운영, 선문화의 의의적인 활동 다짐 등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비구니 스님들이 내적으로 수행에 매진하면서 밖으로는 전법교화에도 뛰어들어 '상구보리 화하중생'의 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종교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비구니 회관이 수행과 전법교화, 각종 연구와 교육, 시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비구니 스님들의 '부드러운' 원력이 세상을 한층 더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찰기탁문화재 모두 722점

중앙박물관 99점 · 지방에 623점 보관

황소장 "소유주 분명하면 돌려줘야"

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사찰 기탁(寄託) 문화재는 모두 722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탁문화재는 일반인(개인이나 단체)이 보관을 의뢰한 경우로, 소유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구한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기탁문화재는 2003년 7월 현재 중앙박물관에 99점, 소속 지방박물관에 623점이 보관 중이다. 중앙박물관의 경우 조계종이 자체 파악한 74점보다 25점이 더 많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 영주 부석사 동불상 1점은 조계종 자체 현황에 빠져 있고 불국사도 조계종이 파악한 게 30여 점인데 비해 중앙박물관은 71점이라고 밝혀 두 배 넘는 차이가 난다.

지방 국립박물관을 보면,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등 273점(경주박물관)과 금산사 해탈왕사비이수 파편 1점(전주박물관), 법주사 괘불탱(보물 1259호, 경주박물관) 등이 조계종 자체 집계에서 빠져 있는 문화재들이다. 조계종은 지방 국립박물관에 706점이 기탁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 측은 그러나 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가 기탁 사찰별 문화재 점수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 세부 목록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감 자료조사를 돕고 있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소유주가 분명한 것은 빨리 돌려주되 사립박물관 육성 차원에서 그동안 보존 방법,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 성과, 전시기법 등을 함께 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생명평화 지리산기도
실상사에서 900일 행사**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 1000일기도 900일 행사가 3-4일 남원 실상사와 노고단 일대에서 열렸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4개 종교인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행사 첫째날은 신학자 현경이 표현하는 '모성, 지리산, 그리고 평화' 강연, 문화마당, 등불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도법스님, 김영호 교수(경북대), 현경 교수(유니온신학대)의 평화좌담회, 지리산평화결사 추진위원회 발족식, 노고단 생명평화 기도, 체험마당 등으로 꾸며졌다. (권현진 기자 6번)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왼쪽)과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6일 아산병원을 찾아가 정몽헌 회장을 조문했다.

"불교협력등 남북교류 지속돼야"

법장총무원장, 정몽헌회장 빈소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고 정몽헌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불교를 포함한 남북교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6일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뒤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자신이 직접 쓴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여여전(如露亦如電) 응작어사관(應作如是觀)'이라는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을 빈소 영단에 올렸다. 이 구절은 '모든 법은 꿈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아서, 마땅히 이렇게 불지니라'라는 뜻이다.

법장스님은 "금강경 마지막 구절은 모두에게 기쁨과 자유를 얻는 해탈문이며, 평안한 해탈과 자유를 얻으라는 뜻에서 글을 올렸다"며 "정몽헌 회장은 선전(정주영)과 더불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분이고, 이 분들의 뜻이 남북 평화정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민(해인사) 총상(불국사) 법타(은혜사) 스님 등 조계종 20여 교구본사주지들도 4일과 7일 정 회

장의 빈소를 방문, 고인의 넋을 기리고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도 4일 정 회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발표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국민이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신계사 복원을 비롯한 불교계 남북교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불교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신계사 복원이나 단청복사 등 남북불교교류사업은 남측의 조계종과 현대아산, 아태위원회 북측의 조불련과 문화보존지도국 등 종교단체 및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범종단 불교환경단체 추진

수경스님, 연구소설립 대안 적극 모색

범종단 환경단체가 설립될 전망이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주도하는 범종단 환경단체 설립은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등 주요종단 대표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불교종단

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도 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경스님은 "범종단적인 환경단체를 설립해 현안문제뿐 아니라 불교환경연구소 등을 설립해 대안 마련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북한 신계사 복원불사등
정주영일가 불교와 인연**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씨 일가는 많은 불사에 동참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왔다. 고 정몽헌 회장의 뜻을 받들어 신계사 복원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도선사에서 49재를 지내고 위패를 모셨으며 정몽준 의원은 올해 해인사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꿀주기도 했다.

'연대' 민평 심민섭

사회적 역할 업그레이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02)2269-7155(주자정일비)
5호선 평대문역동작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밥집 배례

제 8회 선우논강 안내

선우논강은 부처님 유언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화,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선우논강은 1년에 2차례 해제 후에 열리게 됩니다.

제8회 선우논강의 주제는 "왜 간화선인가"입니다.

지난 제7회 선우논강("간화선과 위파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에서는 현 조계종단의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화선 수행 풍토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8회 논강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간화선 수행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수행풍토를 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보려고 합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불기 2547(2003)년 8월 22일(금) 저녁 6시 ~ 10시 (접수는 4시부터 받습니다)
- 장 소: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왜 간화선인가"

- 기조강연: 철오스님(사천 구룡사,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 발 제 자: 원경스님 (송광사 강원 학강)
- 논 평 자: 도법스님(실상사) 월암스님(경주 남산 칠불암)
- 대 상: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2만원
- 준 비 물: 대가사
- 문 의: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논강 후원계좌: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 제8회 논강 발제문 및 토론문은 인터넷 http://cafe.daum.net/nonkang 자료실에 있으나, 관심 있는 분은 내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오**

